

# 잡지 《어린이》를 통하여 본 해방전 아동문학운동의 특징

김진미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적운동은 사회와 집단의 일정한 지향과 요구를 전격적으로 실현하여야 할 필요가 생겼을 때 조직되는 사업이다. 문학운동도 그것을 통해 달성하려는 사회와 집단의 공통된 리상과 투쟁목표가 있기마련이다. 투쟁목표의 높이에 따라 문학운동의 높이도 결정된다.》(《김정일선집》 증보판 제16권 360페이지)

일반적으로 문학운동은 문학작품의 활발한 창작과 출판물의 발간, 창작가들의 평론 활동 등으로 표현된다.

해방전 조선아동문학운동의 발생발전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이 잡지 《어린이》이다.

이 글에서는 잡지 《어린이》를 통하여 해방전 아동문학운동의 특징을 밝히려고 한다.

잡지 《어린이》를 통하여 본 해방전 아동문학운동의 특징은 무엇보다먼저 어린이를 사랑하고 존중할데 대하여 호소하면서 어린이들에게 민족의식을 심어주고 그들을 계몽시키기 위한 운동을 벌인것이다.

해방전 조선아동문학운동은 발생초기 어린이를 천시하는 봉건적관념을 타파하고 어린이의 개성과 인격을 존중할것을 지향하였으며 일제식민지통치밑에서 조국을 독립하고 국권을 회복하려는 목적으로부터 전개된 계몽운동의 흐름속에서 발전하였다.

잡지 《어린이》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잡지로서 해방전 아동문학운동과정에서 자기의 면모를 뚜렷이 하였다.

잡지 《어린이》에는 우선 봉건적질곡에 대한 어린이들의 항거와 배움에 대한 갈망, 자유와 개성의 해방에 대한 념원이 표현된 글들이 실렸다.

《나의 사정—시집만 아는 어머니》(1924. 5),

《빛좋은 개살구—점잖다》(1925. 3), 《농촌소년을 위하여》(1925. 7), 《어른들께 드리는 우리들의 하소연과 요구》(1928. 5), 《조선제일통패설화—어린이의 힘》(1930. 3), 《부형께 하고싶은 말—조혼시켰습니다.》(1932. 5) 등에서는 어린이를 천시하며 조혼을 강요하는 등 봉건적류리도덕관의 희생물이 되는 아이들의 항거와 배움에 대한 갈망이 절절하게 표현되고있다.

1927년 12월호에서는 학교문전에도 가지 못하고 가정의 울타리에서 속절없이 시들어야 하는 아이들의 실태를 구체적인 자료를 들어가며 서술하였다.

글에서는 아이들 대다수가 눈쁜 장님으로 살고있는 현실을 두고 한탄하면서 혼자 떨어져있지 말고 이웃에 사는 여러 동무와 배우는 사람이 되자고 호소하였다.

1928년 5월호의 《어른들께 드리는 우리들의 하소연과 요구》에서도 억눌린 어린이들의 항거의식과 배움의 갈망이 뚜렷이 표현되고있다.

잡지 《어린이》에 실린 글들에서는 어른들과 함께 힘든 로동을 하고 집안일을 돌보아야 하며 봉건적질곡속에 망울도 피워보지 못하고 죽어가야 하면서도 어리다는것으로 어른들의 구속과 구박만을 받아야 하는 어린이들의 처지와 그에 대한 어린이들의 항거가 표현되고있다. 한편 아이들의 립장에서 어린이들을 사랑하고 존중할줄 모르는 사회와 어른들에게 그릇된 관념과 습관을 버릴것을 호소하고있다.

잡지 《어린이》에는 또한 어린 독자들에게 우리 나라의 력사와 문화를 알려주고 민족적자존심과 긍지를 가지도록 하는 글들이 실렸다.

잡지편집자들은 일관하게 조선사람은 조선을 잘 알아야 《자신의 삶을 잘살고 조선

을 잘 위하는 사람이 될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조선공부》라는 제목밑에 서술된 글에서는 어린이에게 있어서 조선공부란 조선을 공부하여 조선을 보다 발전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인데 이것은 곧 자신의 삶을 보다 크게 만들고 참된 인물로 만드는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한 인간의 시시비비의 행위를 반성하여 옳은것을 장려하고 그른것을 제거하여 큰 인물을 이루어가듯이 조선의 과거와 장단점을 알아 새로운 조선을 이루기 위해 조선공부는 밥과 같은것이라고 하였다.

잡지편집자들은 조선의 력사, 조선의 문화, 조선의 언어를 통해 조선의 정신을 키우는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으며 이로부터 강한 민족의식이 구현된 글들을 실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리하여 《조선의 위인》, 《사담》 등의 표제아래 조선의 력사, 지리들이 소개되었다.

강감찬, 을지문덕, 리틀곡, 김삿갓, 허생원, 홍경래, 김응하, 양만춘, 김정호 등 인물들과 《병인양요》, 《병자호란》과 같은 력사적사실 그리고 금강산, 백두산, 압록강, 공주산성, 남한산성, 제주도, 호남벌 등 조선 지리지식들이 실렸다. 이와 함께 《조선지리문답》, 《우리의 발명자랑》, 《우리의 갖가지자랑》과 《조선제일—큰 책, 큰 강, 큰 종, 높은 산, 오래된 건물》 등을 통하여 나라잃은 어린이들에게 민족적공지와 애국심을 심어주었다.

여러호에 걸쳐 게재한 《조선자랑》란에서는 조선사람이 가지는 채주와 담력, 인정미를 찬양하였고 특산물, 기호, 의복 지어는 온돌에 이르기까지 소재로 삼아 애국주의를 심어주었다. 《조선의 특산자랑》란에서는 바다, 산, 광물 등의 특산물을 소개하고 《조선의 발명자랑》, 《조선의 동요자랑》 등에서는 갖가지 자랑거리를 모아서 알려주었다. 이와 함께 조선의 땅을 어린이들에게 알게 하자고 하면서 우리 나라의 지리적위치, 조선지리와

관련된 구체적지식도 주었다.

특히 특집호로 《조선자랑호》를 내어 조선자랑가로 《지리자랑가》까지 지어붙였는데 이 창가에서는 조선을 《맹호13도》라고 하였다. 이것은 일본이 조선반도를 토끼라고 비유한것에 반기를 든것으로서 어린이들에게 호랑이처럼 용맹하고 위신있는 조선을 자랑하고 긍지로 여기는 정신을 심어주려는 편집자들의 의도가 그대로 비친것이다. 이 모든것은 어린이들에게 조선을 알도록 하고 조국에 대한 애착심을 가지도록 하자는데 있었다.

편집자들은 우리 나라의 문화에 대해서도 적극 소개하였다.

조선의 문화를 소개하는 글들에서 이채로운것은 《한글란》, 《맞춤법이야기》, 《세계제일 조선글》, 《조선글을 만들은 해》 등의 조선어에 대한 소개글이다.

이 글들에서는 나라를 빼앗겨도 조선의 말과 글을 지켜야 민족을 지키는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조선말의 우수성과 아름다움, 조선글의 창제력사 등을 알려주어 민족자주의식을 심어주려고 한 편집자들의 지향이 그대로 엿보이고있다.

잡지 《어린이》는 마지막호인 1934년 1, 2월호에서 《한글맞춤법이야기》라는 표제아래 《조선의 글을 바로잡아야 할것은 다시 말할것도 없는 일》이기때문에 옳바른 조선말을 쓰기 위해 여러 사람이 힘을 합해야 하는데 그중에서도 어린이의 힘이 가장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렇듯 일제의 민족말살정책이 로골화되는 속에서도 잡지 《어린이》는 마지막호까지 아이들에게 민족정신을 심어주려고 하였다.

잡지 《어린이》에는 이밖에도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와 인물들에 대한 지식과 자연과 사회에 대한 지식을 심어주어 아이들의 시야를 넓혀주고 다방면적인 지식을 가진 인재로 키워야 한다는 근대적지향이 표현된 글들도 실렸다.

이처럼 잡지 《어린이》의 편집자들은 봉건적문리의 구속과 일제식민지교육을 반대하며 짓밟힌 나라의 운명을 아이들의 장래와 결부시키면서 아이들을 조선독립의 일군으로 키워야 한다는 지향과 근대적지향밑에 아동존중, 아동계몽에 이바지하는 글들을 활발히 게재하였다.

잡지 《어린이》를 통하여 본 해방전 아동문학운동의 특징은 다음으로 아동문학창작열의를 높이며 작가적력량을 보장하기 위한 활동을 활발히 벌인것이다.

잡지 《어린이》는 우리 나라 최초의 본격적인 아동문학잡지로서 아동문학발전과 아동문학작가배출에서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였다.

초기 잡지 《어린이》의 주되는 작가들로서는 방정환, 고한승, 마해송, 진장섭, 리정호, 최경화, 연성흙 등이 동화를, 방정환, 한창동, 윤극영, 류도순 등이 동요를, 전인섭, 신고송 등이 동극을 적극 창작하여 작가활동을 활발히 벌렸다.

그리고 차상찬, 박달성, 신영철, 최영주 등이 력사, 지리, 과학을 비롯한 교양물을 도맡았다. 이렇게 하여 잡지 《어린이》는 우리나라의 본격적인 아동문학과 소년운동발전에서 힘있는 동행자를 얻게 되었다.

이와 함께 방정환을 비롯한 잡지 《어린이》의 편집자들은 독자들의 창작적열의를 높이고 작가를 양성하여 아동문학문단을 형성하려고 노력하였다.

우선 잡지 《어린이》에는 여러가지 형태의 글짓기교육의 글들이 실렸다.

그 첫걸음이 동요창작강의였다.

《동요 지시려는 분께》(1924.2)에서는 동요는 《어린이들의 기쁘고 노여웁고 슬프고 즐거움에 느끼는 정을 가르치고 키워주는 힘》이라고 하면서 우리 나라에서 동요가 보기 어려운 요인에 대하여 《우리 어린이세상이 찌로 살아가는 어른들의 참견을 받고 어른들이 어린이는 사람의 값을 쳐주지 않고 그

저 잡아눌러서 어린이들은 입이 있어도 노래부르지 못하게 하고 손발이 있어도 춤추지 못하게 하는 무지한것이 시작되던 때로부터 차차 뒷걸음질을 쳐서 지금 이 지경에 이른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1924년 4월호에서는 자라나는 작가들에게 동요는 어린이의 마음과 행동, 성품을 가져 아이들의 동심을 구현해야 한다고 하면서 아름다운 정서를 길러주는 노래를 적극 창작하도록 고무하였다.

글짓기교육의 글들에서는 이밖에도 작문창작, 편지 등 다양한 형태의 글창작과 관련한 내용도 취급하였다.

《○생각하는 그대로 써라

○정신을 쏟아넣어 지어라

○많이 읽고 많이 지어라

○몇번이던지 좋게 고치라

○힘써 남의 비평을 받으라

…대체 《그 글 잘되었다》하고 칭찬하는 것은 무엇을 표준하고 하는 말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아무것보다도 먼저 그 글에 그 사람의 속생각이 분명하게 나타났느냐 안나타났느냐 하는데 있는것입니다. 즉 누구든지 그 글을 읽고 그 글을 써놓은 사람의 생각을 똑똑히 잘 이해하게 되었으면 그 글은 잘된 글이라 할수 있는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남의 속생각을 똑똑히 알게 쓰게 되느냐 하면 자기의 느낌과 뜻과 생각을 조금도 더 꾸미지 말고 더 빠지도 말고 그대로 생각그대로 써놓으면 되는것입니다. 공연히 글 잘하는체 하고 남의 글에 있는 문자만 골라다 늘어놓거나 남의 글 흉내만 내어 꾸며놓으면 읽는 사람이 그 글을 쓴 사람의 속생각은 도무지 알수 없게 되니까 그 글은 아무짝에 소용없는 쓸데없는 글이 되어버리고마는것입니다.》(1924.12,《이렇게 하면 글을 잘 짓게 됩니다》)

1927년 6월호에 실린 《작문교실》이라는 표제밑에 게재된 《방학중의 편지》, 1930년 12월호에 실린 《년하장 쓰는 법》 등을 비

로 하여 다양한 형태와 양상의 글쓰는 법들이 지면에 올랐다.

또한 잡지 《어린이》에는 현상모집과 관련한 글들과 독자들이 투고한 글들이 실렸다.

현상모집은 광범한 군중의 창작열의를 불러일으키며 대중속에서 문학창작의 귀중한 싹을 발견하고 키울수 있는 방법의 하나이다.

잡지 《어린이》는 다양한 형태와 방법으로 벌어진 현상모집과 관련한 글들을 활발히 실었다.

현상모집에 대한 광고는 잡지 《어린이》만을 대상하는것이 아니라 지어 다른 창작기관의 작품창작응모소식도 담았다.

현상모집과 함께 독자들의 투고란을 만들어 잘된 작품들도 실었다.

대표적인것은 《독자담화실》, 《갈갈소학교》투고란이었다.

《갈갈소학교》는 《내 얼굴을 보고 웃으면 안돼요. 어느 생도든지 5년생 뽑히면 메달상 줍니다. — 교장 갈갈박사》란 표제로 1925년부터 폐간되는 1934년까지 200편 가까이 되는 독자들이 창작한 우스개말이 소개되었다. 당시 잡지 《어린이》의 독자들은 《갈갈박사》가 주는 《5년생》평가를 얻기 위해 한두번이 아니라 여러번씩 투고하였다. 이것은 독자들의 창작열의를 높이는것과 동시에 어린이들에게 다소나마 랑만과 웃음, 기쁨을 안겨주고 기지와 재치를 키우게 하였다.

글짓기교육과 투고를 통하여 초기에는 글짓기응모나 투고에 지나지 않았던 독자들이 완성된 문학작품을 내놓게 되었으며 1930년 8월호에서는 머리글에서부터 마지막까지 독자들의 작품으로 잡지를 만들 편집부의 의향과 권고를 실게까지 되었다.

잡지 《어린이》를 통하여 재능있는 아동문학작가들이 배출되었다.

동요 《고향의 봄》의 작가인 리원수, 《봄편지》를 쓴 서덕출 등은 잡지 《어린이》의 열성적인 독자였으며 지면에 작품을 투고하

면서 장차 이름있는 아동문학작가로 성장하였다.

잡지 《어린이》에는 소설총평과 동요시평을 비롯한 평론들도 활발히 실려 창작가들의 창작열의를 높여주었다.

잡지 《어린이》의 편집자들은 작가들의 창작열의를 높이기 위해 1932년부터 지면에 평론들을 실었다.

실례로 《반개년간 소년소설 총평》(1932. 6)을 들수 있다.

《비평이 없는 곳에 전진이 없고 건전치 못하는 때에 퇴보가 있을뿐임을 통감하야마지 않았을뿐만아니라 조선의 문단이 있다 하면 소년문학운동도 한 부분을 차지하고있는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조선문단전체의 앞길을 위하여 예리한 평필을 드는 평가다운 평가가 별로 없는것과 마찬가지로 소년문예운동의 엄연한 존재가 움직이고있건만 거기 대하여 별로 관심하는 사람이 없음에 따라서 날마다 쏟아져나오는 소년문예작품들의 장래가 어떻게 될가?—하는 분에 넘치는 걱정의 나머지 서투른 평필을 들어...》라고 서문을 댔 글에서는 아동문학의 질적향상을 위해 잡지 《어린이》에서 평론사업을 벌릴것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구체적작품을 놓고 평가하였다.

잡지 《어린이》를 통하여 본 해방전 아동문학운동의 특징은 다음으로 독자대중을 전취하며 잡지간행을 위한 활동을 활발히 벌린것이다.

문학운동에서 지면획득과 독자대중의 전취는 중요한 내용을 이룬다.

여기에서 잡지 《어린이》의 발행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방정환을 중심으로 한 작가들은 소년운동을 시작함에 있어서 잡지 《어린이》의 발간에 큰 의의를 부여하였다.

《짓밟히고 학대받고 쓸쓸스럽게 자라는 어린이를 구원하자! 이렇게 웨치면서 우리들이 약한 힘으로 일으킨것이 소년운동이요,

각지에 선전하고 충동해야 소년회를 일으키고 또 소년문제연구회를 조직하고 한편으로 <어린이>잡지를 시작한것이 그 운동을 위하는 몇가지의 일입니다. ...가련한 조선소년들을 위하여 소년운동을 더 널리 선전하고 더 넓게 넓혀가자! 한사람에게라도 더 위안을 주고 새로운 기운과 혼을 넣어주기 위하여 <어린이>를 더 잘 꾸며가고 더 넓혀가자! 우리의 온갖 노력은 전혀 여기에 있을뿐입니다...》(《<어린이>동무들께》, 1924.12)

우의 글은 잡지 《어린이》의 창간이 소년운동을 위한것이며 짓밟힌 조선어린이를 해방하고 교육교양하는 힘있는 수단으로 되었다는것을 말해준다.

잡지 《어린이》의 창간자들은 잡지발행과 함께 잡지가 어린이들의 호응과 사랑을 받음으로써 많은 독자들을 전취할수 있도록 내용과 형식에 많은 힘을 기울였다.

그들은 지면에서 아동문학의 사회적능력과 역할을 높이는 과정에 어린 독자들을 전취하고 조선의 방방곡곡 어린이들의 마음을 쟁취하여나갔다. 특히 매 호마다 있는 《독자담화실》에서는 잡지에서 발표된 작품들에 대한 감상, 작가에 대한 문의, 구성에서의 소원, 부탁을 실었는데 이때 어린 독자들의 의문이나 부탁에 하나씩 답신을 써서 보내었다. 그리고 《독자담화실》을 통하여 많은 어린이들이 각기 자기 지방의 소식을 나누고 소년문화운동을 촉진시킬수 있도록 각지의 소년회들의 조직과 활동 등을 실었다. 여기서 주목되는것은 그들이 조선뿐아니라 일본, 중국 등 조선사람이 살고있는 모든 곳들에 다 가보고 그곳에서의 소년회와 각종 소년조직의 활동에 대하여 상세히 실었으며 소년운동의 통일과 단결을 위한데 중심을 두고 문필활동을 벌린것이다.

그러면서도 소년운동의 초점은 명백히 오랜 봉건제도에 의해 억눌리고 천대받던 어

린이에 대한 사회의 올바른 인식을 촉구하고 유교적륜리사상에서 어린이를 해방시켜 그들의 사회적지위를 높이는데 두었다.

그들은 더 많은 어린이들을 전취하기 위하여 잡지의 대상을 광범한 조선어린이들로 정하였다. 도시에 살고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만이 아니라 학교에도 못가고 농촌에 사는 아이들, 일제식민지통치밑에서 신음하는 헐벗고 굶주린 조선의 어린이들이 다 포괄되었다. 그리하여 지면에는 소년의 공장로동, 가난한 농촌현실, 월사금문제 등이 주되는 소재로 취급되었다.

《농촌소년을 위하여》, 《농촌어린이들에게 쓸쓸하나마 낙망하지는 말자!》, 《농촌의 직업소년을 대신하여》, 《농촌소녀의 학교생활기》, 《농촌소녀의 봄일기》 등 농촌에서 사는 어린이들의 생활실태나 그들의 수기를 소개하였으며 1929년 5월초부터는 《직업소년의 설음》이라는 표제밑에 연초직공, 인쇄직공, 정미직공, 제사직공소년들의 하소연을 실었다. 그리고 1930년 8월부터는 특별독물 《공장소년순방기》의 연재를 시작하여 공장로동을 하는 소년, 소녀들의 로동실태나 율분, 생활을 소개하였으며 때로는 《농촌소년이 공장소년들에게 보내는 말》이라는 표제밑에 지상을 통하여 어린이들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게 하였다.

잡지 《어린이》창간자들의 고심어린 노력에 의하여 창간당시 20명도 못되던 독자들이 1년후에는 10만여명으로 늘어났다.

잡지 《어린이》는 광범한 어린이들의 사랑을 받았으며 일제의 검열로 압수당하였다가 다시 편집하여 간행하는 등 온갖 애로와 고통속에서도 10여년동안이나 계속 발행되었다.

이처럼 해방전 아동문학운동은 조직자들의 세계관적 및 시대적제한성으로 하여 응당한 결실을 이루지는 못하였지만 애국적인 운동으로 력사에 남았다.